

신경향 최종모의고사 정답

1	2	3	4	5	6	7	8	9	10
③	⑤	③	③	①	④	①	②	②	②
11	12	13	14	15	16	17	18	19	20
④	①	③	①	⑤	②	⑤	⑤	②	⑤
21	22	23	24	25	26	27	28	29	30
①	①	⑤	②	④	②	⑤	③	⑤	②
31	32	33	34	35	36	37	38	39	40
③	④	④	③	②	④	②	①	④	③
41	42	43	44	45	46	47	48	49	50
②	⑤	④	③	④	②	⑤	②	②	③
51	52	53	54	55	56	57	58	59	60
⑤	③	⑤	①	⑤	④	④	⑤	①	⑤
61	62	63	64	65	66	67	68	69	70
⑤	④	②	②	①	⑤	③	①	④	②
71	72	73	74	75	76	77	78	79	80
④	④	③	③	③	④	⑤	①	②	①

1. ③ (P14)

① 저하 ②④ 증가 ⑤ 비가역적 진행

2. ⑤ (P18)

①⑤ 최근에 자녀가 노인부모와 근거리에 살면서 부양을 하는 수정확대가족이 나타났다.
 ②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역할 관계 재정립과 가치관 공유 등을 통해 바람직한 고부관계를 유지
 ③ 과거에 존재했던 경쟁심이나 갈등이 줄어들고, 상호이해와 동조성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.

3. ③ (P37)

① 병원 입원 중인 노인은 급여대상자에서 제외된다. ② 본인, 가족이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(본인이나 가족 등의 동의 필요)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④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 직원

(사회복지사, 간호사 등) ⑤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.

4. ③ (P40)

도서·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, 천재지변, 수급자의 신체·정신 또는 성격상의 사유 등으로 인해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되는 현금급여를 말한다.

5. ① (P42)

보험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를 곱하여 산정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고지하고, 징수 후 독립회계로 관리
국가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%를 국가에서 부담

본인 일부부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설급여 20%, 재가급여 15%, 복지 용구 15% 부담 • 저소득층,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은 법정 본인부담금의 40~60% 경감 •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 (단, 비급여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)
------------	--

6. ④ (P48)

신체활동 지원	① 세면도움 ② 구강관리 ③ 머리 감기기 ④ 목단장 ⑤ 옷 갈아입히기 ⑥ 목욕 도움 ⑦ 식사 도움 ⑧ 체위변경 ⑨ 이동 도움 ⑩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⑪ 화장실 이용 돕기
일상생활 지원	① 취사(장보기) ② 청소 및 주변 정돈 ③ 세탁 ※ 전업주부 역할
개인활동 지원	① 외출 시 동행 ② 일상 업무 대행 ※ 밖으로 나가 활동하는 것
정서지원	① 말벗, 격려, 위로 ② 생활상담 ③ 의사소통 도움 ※ 말로 하는 것
방문목욕	① 방문목욕 ※ 신체활동 지원의 ⑥ 목욕 도움과 구분할 것
기능회복 훈련	① 신체·인지향상프로그램 ② 기본동작 훈련 ③ 일상생활동작 훈련 ④ 물리치료 ⑤ 언어치료 ⑥ 작업치료 ⑦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⑧ 기타 재활치료 ※ ‘훈련’과 ‘치료’로 끝나는 것
치매관리 지원	① 행동변화 대처
응급	① 응급상황 대처
시설환경 관리	① 침구·린넨 교환 및 정리 ② 환경관리 ③ 물품관리 ④ 세탁물관리
간호처치	① 관찰 및 측정 ※ 나머지는 간호와 관련
※ 제한된 업무 : 기능회복훈련, 간호처치서비스는 요양보호사의 업무에서 제외	

7. ① (P61)

관찰자	• 맥박, 호흡, 체온, 혈압 등의 변화와 투약 여부, 질병의 변화에 대한 증상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까지 관찰
정보 전달자	•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인 정보를 가족,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 등에게 전달 • 서비스 내용 변경이 필요할 때 기관에 보고
숙련된 수발자	• 숙련된 요양보호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해 주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
말벗과 상담자	•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으로 대상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의 신체적, 정신적, 심리적 안위를 도모
동기 유발자	•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며 지지
옹호자	•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 주기

8. ② (P69)

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치매 등의 사유로 인간으로서 권리와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 • 종사자는 돌봄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 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 • 권리 침해가 우려되거나, 침해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에 적극적 조치 강구 • 시설장과 종사자는 인권교육 이수, 시설장은 입소 노인에게 인권교육 실시 • 가족은 면회나 전화 등을 통하여 노인과 관계 지속유지 •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 존중
------------------	---

9. ② (P81)

학대 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노인과의 접촉 기피 •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 방해 • 노인을 위협·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 • 노인과 관련된 결정 사항의 의사결정과정에 소외
-------	---

세부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. • 일상생활(식사, 일상물품 사용 등)을 타 가구원과 별도로 하게 한다. • 친구나 친지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방해 •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 • 비방이나 유언비어로 노인의 경제활동 저해 • 이성교제를 방해하거나 죽이겠다고 협박 • ‘시설로 보낸다’ 또는 ‘집에서 나가라’ 등의 위협 · 협박 •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 •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 • 소지품 처분을 결정할 때 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다. •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.
----------	---

10. ② (P89)

11. ④ (P93)

산업재해 보상 보험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산재로 요양 중에 퇴직하거나 사업장이 부도, 폐업하여 없어진 경우에도 가능 •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. • 산재요양으로 휴업하는 기간과 치료를 종결한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. • 보험급여는 조세 및 기타 공과금 부과가 면제되어 세금을 떼지 않는다. •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내용에 따라 3년 혹은 5년간 유효하며 퇴직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. • 보험급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어 채권자가 건드릴 수 없다.
-------------------	---

12. ① (P93)

언어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음란한 농담,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 ·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•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·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•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• 회식자리 등에서 옆에 앉아 술을 따르라고 함
육체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입맞춤, 포옹,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접촉 • 가슴,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• 안마나 애무를 하거나, 신체일부를 밀착하거나 잡아당김
시각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음란한 사진, 그림, 낙서,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•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, 사진, 그림을 보내는 행위 •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짐

13. ③ (P97)

14. ① (P102)

15. ⑤ (P112)

양손으로 들어올릴 때	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혀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고 지지면을 넓힌다. • 무릎을 펴서 들어올린다. • 물건 든 상태에서 방향 전환 시 허리를 돌리지 않고 발을 움직여 조절한다. • 물체는 최대한 몸 가까이 위치하도록 하여 들어올린다. • 허리가 아닌 다리를 펴서 들어 올린다.
----------------	--

16. ② (P117)

주의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같은 동작은 5~10회 반복하고, 동작과 동작 사이에 5~10초 정도 휴식 • 천천히 안정되게 실시 • 통증을 느끼지 않고 시원하다는 느낌이 드는 범위에서 실시(통증은 근육의 긴장과 부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) • 스트레칭 된 자세로 10~15초 정도 유지해야 근섬유가 충분히 늘어난다. • 상·하·좌·우 균형 있게 교대 실시 • 호흡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실시
-------	--

17. ⑤ (P121)

노로 바이러스 감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구토, 메스꺼움, 오한, 복통, 설사, 근육통, 권태, 두통, 발열 등 • 감염된 경우 증상이 약하더라도 2~3일간 요양보호 업무 중단 • 증상 회복 후 최소 2~3일간 음식조리에 참여하지 않는다. • 어패류 등은 반드시 익혀서 먹도록 한다. • 계절적으로 11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발생이 높다. • 감염력이 강하고 장염을 잘 일으킨다.
------------	---

18. ⑤ (P127)

특 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. •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 동반 •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애매하여 정상적인 노화과정과 구분 곤란 • 원인이 불명확한 만성퇴행성 질환이 대부분 • 경과가 길고, 재발이 빈번하며, 합병증이 생기기 쉽다. • 약물에 민감하게 반응 • 신장의 소변 농축능력과 배설능력 저하로 약물 중독 •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다. • 질환 자체가 비교적 가벼워도 의식장애를 일으키기 쉽다.
-----	--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활동 강도 및 노화에 따른 혈액순환 저하로 욕창이 잘 발생 •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저하되면 질환이 치유된 후에도 의존상태가 지속 • 신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, 사회적, 경제적, 영적측면이 모두 연관
--	---

19. ② (P129)

증 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속쓰림, 소화불량, 새벽 1~2시에 발생하는 상복부 불편감 • 심한 경우 위 출혈, 위 천공, 위 협착
치료 및 예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약물요법과 함께 알맞은 식이요법, 충분한 수면, 심신 안정 • 위궤양으로 진단된 후에는 절대적으로 금연 • 위 출혈, 천공, 협착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병원치료

20. ⑤ (P134)

증 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장습관의 변화와 장폐색, 설사, 변비, 혈변, 직장출혈, 점액 분비, 허약감, 체중감소 • 양성종양이나 계실, 치질, 변비 등에서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
대상자의 식이요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치료 후 5년간은 병원에서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 검진 • 잦은 간식과 늦은 식사 피하기, 통곡식, 생채소, 생과일 섭취 • 동물성 식품의 섭취를 줄이고, 식물성 지방 섭취

21. ① (P142)

원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꽃가루, 집먼지진드기, 강아지나 고양이 털 및 배설물, 곰팡이 • 대기오염, 황사, 매연, 먼지 등의 자극 물질, 자극적인 냄새, 담배연기 • 갑작스런 온도나 습도의 차이, 특히 차고 건조한 공기에 갑자기 노출
----	---

증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침, 숨을 내쉴 때 쉼쉼거리는 호흡음, 호흡 곤란 • 점액 분비량의 증가, 가슴이 답답하거나 불쾌감, 기도 경련, 알레르기성 비염
치료 및 예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따뜻한 곳에서 추운 곳으로 가거나 갑작스런 온도변화 피한다. • 운동 30분 전에 기관지확장제 사용, 담배, 벽난로, 먼지, 곰팡이를 피한다. • 적당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고,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인다.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관절을 많이 사용할수록 통증이 심해질 수 있음 • 관절의 변형(무릎 관절에 관절액이 많아져 무릎이 부어올라 모양 변화)
치료 및 예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관절 경직을 예방하고 근육강화를 위해 통증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절운동 • 관절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체중조절 • 관절에 부담되지 않는 규칙적인 운동 (예: 수영, 평평한 흙길 걷기, 체조 등)

22. ① (P147)

약물 치료에 대한 편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증상이 없으면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(×). ⇒ 증상이 없어도 혈압이 높으면 치료해야 한다. • 두통 등의 증상이 있을 때만 약을 먹는다(×). ⇒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계속 약을 먹어야 한다. • 혈압약을 오래 먹으면 몸이 약해진다(×). ⇒ 약을 오래 복용하는 것이 몸에 좋지는 않지만, 고혈압의 합병증보다는 안전한 약이 많다. • 혈압이 조절되면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(×). ⇒ 혈압이 조절된다고 약을 안 먹으면 약효가 떨어지자마자 혈압이 다시 올라간다. 따라서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계속 약을 먹어야 한다.
--------------	--

23. ⑤ (P154)

의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뼈를 보호해 주는 연골(물렁뼈)이 닳아서 없어지거나 관절에 염증성 변화상태
증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관절부위의 통증, 날씨가 활동의 정도에 따라 통증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 •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져 있는 경직현상

24. ② (P162)

증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비대된 전립선이 요도를 눌러 요도가 좁아져 소변줄기가 가늘어짐 •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음(잔뇨감) • 소변이 바로 나오지 않고 힘을 주어야 나오음 • 배뇨 후 2시간 이내 다시 소변이 마렵고 (빈뇨) 마려울 때 참기 힘들(긴박뇨) •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려고 자주 깬(야뇨)
----	--

25. ④ (P168)

의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하여 피부와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 • 과거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서 주로 발생 • 작은 물집이 몸의 한쪽에 모여 전체적으로 띠 모양으로 나타난다.
증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가려움, 저림 또는 작열감(타는 듯한 느낌의 통증과 화끈거림)을 포함한 발진 • 피부와 점막에 있는 감각신경말단 부위의 수포, 통증, 작열감
치료 및 예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통증을 감소시키고, 수포의 건조 속도를 빠르게 한다. • 신경통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. • 병소가 퍼지거나 감염되지 않도록 긁지 않는다.

26. ② (P175)

의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안압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점차적으로 약해지는 질환 • 적정 안압 15~20mmHg
증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좁은 시야, 눈 이물감 • 어두움에 적응장애 • 색깔변화 인식장애 • 뿌옇게 혼탁한 각막 • 안구통증 • 두통, 구역질, 실명
일상생활 주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머리로 피가 물리는 자세(물구나무서기 등)나 복압이 올라가는 운동(윗몸 일으키기 등)은 안압을 올릴 수 있으므로 피한다. • 고개를 숙인 자세에서 장시간 독서하거나 작업하는 것을 피한다.

27. ⑤ (P179)

증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다음증(목마름), 다식증(많이 먹음), 다뇨증, 체중감소 • 흐릿한 시력과 두통, 무기력, 발기부전, 질 분비물 및 질 감염의 증가 • 상처 치유 지연, 감각이상 및 저하 • 감염, 식사량 증가, 활동량 감소 등의 경우 고혈당(배뇨 증가, 체중감소, 피로감, 식욕 증가 등) • 식사량 감소, 활동량 증가 등의 경우 저혈당(땀을 많이 흘림, 두통, 시야몽롱, 배고픔, 어지럼 등)
----	--

28. ③ (P184)

의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 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하게 발생, 증상의 기복이 심하다.
증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의식 수준의 변화로 잠에서 덜 깬거나 몹시 졸린 상태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보임 • 주의력 감퇴, 시간, 장소, 사람에 대한 지남력 장애 • 인지장애, 초조, 지각장애, 편집 망상, 정서 불안정 • 섬망은 단독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치매와 동반되어 나타나기도 함

29. ⑤ (P191)

〈비약물요법〉

환경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가급적 단순하고 구조화되어 있으며 안정적인 환경 제공
행동개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행동 수정을 위해 설득, 강화, 필요시 격리 등의 방법 사용
인지 및 활동자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공예, 간단한 물건 만들기, 그림 그리기, 음악을 듣거나 노래 부르기 등 대상자에게 익숙하며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활동

30. ② (P201)

〈수분섭취〉

제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간경화, 심부전, 신부전증, 부신기능저하증, 심한 갑상선기능저하증
권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요로감염, 방광염, 전립선염, 폐렴, 기관지염, 고혈압, 협심증, 당뇨병

31. ③ (P209)

사용 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다른 사람에게 처방된 약을 절대로 복용해서는 안 된다. • 현재의 복용 약물에 대해 최근 기록을 가지고 있도록 한다. • 약을 술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. • 진료 후 이전 처방약을 이어서 복용하지 않는다. • 약이 쓰다고 다른 것과 함께 복용하면 안 된다. • 우유, 녹차, 커피 등 카페인 음료와 함께 복용하면 약의 흡수가 방해된다. • 약을 자몽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고혈압, 고지혈증의 부작용이 증가한다. • 철분제는 오렌지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가 잘된다. • 삼키는 것이 힘들다고 쪼개서 복용하면 안 된다. • 분할선이 있는 약만 쪼개거나 분쇄하여 복용할 수 있다. • 약 복용을 잊어버렸다고 그 다음 복용 시간에 2배로 복용하면 안 된다.
-------	--

32. ④ (P214)

대 상	50~64세	65세 이상
파상풍/ 디프테리아/ 백일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차 기본접종은 모두 • 이후 10년마다 파상풍, 디프테리아 추가접종 	
인플루엔자	매년 1회	
폐렴구균	위험군에 대해 1회~2회 접종	1회
대상포진	1회	1회

33. ④ (P418)

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과 시간, 특이 사항 기입
상태기록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배설, 목욕, 식사섭취, 체위변경, 외출 등의 상태 및 제공 내용 기록
사고보고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관리책임자 또는 경우에 따라 요양보호사가 작성 •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고의 내용, 경과, 결과에 대해 정확하게 기록
인수인계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요양보호사가 퇴직, 휴직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그만둘 때 작성 • 인수인계서는 수급자명, 급여제 공내용, 유의 사항 등이 포함

34. ③ (P500)

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작성자 : 말기환자나 임종과정 전 19세 이상 / 본인 직접 작성 • 중단가능 : 심폐소생술, 혈액투석, 항암제 투여, 인공호흡기 착용 • 중단불가능 :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, 영양분 공급, 물 공급, 산소의 단순 공급 • 등록기관에 등록하면 효력 발생 •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 가능 • 등록했어도 의료기관과 연동되는 것은 아님, 가족에게 알려야 함(연명의료정보시스템 확인하면 작성여부 열람 가능) • 존엄사, 소극적 안락사와 유사, 의사의 도움을 받아 죽도록 하는 안락사와 차이
-----------------------	--

35. ② (P507)

이마를 가볍게 문질러 주거나 책을 읽어 주며, 진정시킬 수 있는 음악을 들려준다.

36. ④ (P226)

올바른 식사자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식탁 높이 →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 • 의자에 앉을 때는 안쪽 깊숙이 • 의자의 높이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을 수 있는 정도 (× 발가락) • 팔 받침, 등받이가 있는 의자는 안전하고 좌우 균형 잡는 데 도움
침대 걸터 앉은 자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상자가 어느 정도 균형을 잡을 수 있으면 침대에 걸쳐 앉아 식사할 수 있다. • 넘어지지 않도록 왼쪽이나 오른쪽 또는 앞뒤에 쿠션을 대준다.
침대머리 올린 자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앉을 수도 없는 경우 → 침대를 약 30~60° 높인다. • 머리를 앞으로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기면 음식을 삼키기가 쉽다.
편마비 대상자 식사자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(건강한 쪽이 밑으로 가야 안정감이 있고 지지가 된다). • 마비된 쪽을 베게나 쿠션으로 지지하고 음식 제공

37. ② (P230)

사례예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가능하면 앉아서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로 식사 • 의자에 앉을 수 없는 대상자는 몸의 윗부분을 높게 해 주고 턱을 당긴 자세 • 배 부위와 가슴을 압박하지 않는 옷을 입힌다. • 국이나 물, 차 등으로 먼저 목을 축이고 음식을 먹게 한다. • 대상자가 충분히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양을 입에 넣어준다.
------	---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한 다음에 음식을 입에 넣어준다. •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는 대상자에게 질문하지 않는다.
--	---

38. ① (P231)

② 시설장 등에게 즉시 보고 ③ 대상자가 토하거나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위관을 잠근 후 바로 시설장이나 관리책임자 등에게 알린다. ④ 1분에 50mL 이상 주입하지 않는다. ⑤ 대상자가 토하거나 청색증이 나타난 경우 → 비위관을 잠근 후 바로 시설장, 간호사 등에게 알린다.

39. ④ (P234)

①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확실하지 않은 약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. ② 물을 충분히 제공하여 약을 잘 삼키고 위장관에서 잘 흡수되게 한다. ③ 가루약은 숟가락을 사용하여 약간의 물에 녹인 후 투약하거나,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 ⑤ 라벨의 반대쪽으로 용액을 따른다.

40. ③ (P237)

① 안쪽에서 바깥쪽 ② 아래 결막낭 위에 튜브를 놓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연고를 2cm 정도 짜 넣는다. ④ 아랫눈꺼풀(하안검)의 중앙이나 외측으로 1~2cm 높이에서 안약용액을 투여한다. ⑤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멸균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 솜으로 닦아낸다.

41. ② (P238)

귓바퀴를 후상방으로 잡아당겨 약물 투여가 쉽게 한 후 측면을 따라 정확한 방울 수의 약물을 점적 한다.

42. ⑤ (P246)

① 앞에서 뒤쪽으로 ② 침상머리를 높게 ③ 배변 후 닦는 과정에서 확인 ④ 따뜻하게

43. ④ (P248)

① 건강한 쪽 ② 그때그때 ③ 바닥에 닿게 ⑤ 침대 높이와 이동변기의 높이가 같도록 맞춘다. 침대에서 이동변기로 이동할 때 넘어지거나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주의한다.

44. ③ (P250)

① 대상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노출은 피한다. 기저귀 교환 후 창문 열려 환기 ② 허리를 들 수 없거나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자일 경우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혀 기저귀를 교환한다. ④ 배변시간에 맞추어 자주 살펴보고 젖었으면 속히 갈아주어 피부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한다. ⑤ 둔부 및 항문 부위, 회음부를 따뜻한 물티슈로 닦아낸다.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 말린다.

45. ④ (P252)

① 소변량과 색깔을 2~3시간마다 확인한다. ② 소변주머니를 방광(아랫배)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는다. ③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어도 침대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으며 보행도 할 수 있음을 대상자에게 알려준다. ⑤ 시설장 등에게 보고한다.

46. ② (P258)

① 의치 삽입 전에 구강세정제와 미온수로 입을 충분히 행군다. ③ 의치를 세척할 때는 의치세정제를 사용하고, 주방세제를 대신 사용할 수 있다. ④ 전체 의치인 경우 건조를 막기 위해서 위쪽과 아래쪽 의치를 맞추어서 뚜껑이 있고 물이 담긴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. ⑤ 의치세정제나 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하여 의치의 변형을 막는다.

47. ⑤ (P261)

48. ② (P264)

① 누워서 무릎을 세우게 하고 목욕담요를 마름모꼴로 펴서 대상자의 몸과 다리를 덮는

다. ④ 요도에서 항문 쪽으로 ③ ⑤ 시설장이
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.

49. ② (P270)

① 건강한 쪽 다리, 마비된 쪽 다리 순으로
옮겨 놓게 한다. ④ 5분 ⑤ 목욕물 온도는
따뜻하게(40℃ 내외) 맞춘다.

50. ③ (P276)

51. ⑤ (P283)

52. ③ (P283)

53. ⑤ (P291)

54. ① (P292)

작동 기본원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그재그 : 막길 / 경사길 / 비탈길 / 언덕길 → '길' • 뒤로 이동 : 무조건 내려갈 때 • 앞바퀴 들어 올린 경우 : 'ㄷ' (턱, 통) → 문턱, 도로턱, 울퉁불퉁 • 엘리베이터 :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온다(주차와 같은 방법).
------------	--

55. ⑤ (P296)

56. ④ (P304)

57. ④ (P309)

분비물 처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배설물을 만질 때는 반드시 장갑 착용 • 오염된 세탁물은 장갑을 끼고 격리 장소에 따로 배출 • 가정에서는 배설물이 묻은 의류나 물건을 따로 세탁 •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경우 찬물로 닦고 더운물로 행군다. • 배설물 처리 후에는 장갑을 착용하였더라도 손을 씻는다.
-----------	--

58. ⑤ (P323)

선정시 고려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앉는 면이 높지 않은 것이 좋다. • 등받이가 높고 팔걸이가 있으며, 기대어 앉아도 넘어지지 않는 안정적인 것 • 엉덩이 부위는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, 의자 부분에 구멍이 있거나 홈이 파여 있어 물이 흐를 수 있을 것 • 앉은 상태에서 회음부를 씻길 수 있게 된 것이 더 좋다. • 다리 밑 부분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.
사용시 주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용시 반드시 팔걸이를 펴서 대상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. • 앉은 채로 샤워를 하고 샤워 후에는 타월로 물기를 닦아준다.

59. ① (P331)

- ② 조명이 어둡거나 전구가 나가면 바로 교체하며, LED 등의 밝은 조명으로 교체한다.
- ③ 발에 꼭 맞는 신발, 바닥에 미끄럼방지 처리가 된 신발을 신게 한다.
- ④ 침대는 난간이 있는 노인용 침대를 이용하여 난간을 올리고 취침하게 한다.
- ⑤ 가급적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.

60. ⑤ (P332)

대처방법 및 대피요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피가 어려운 경우 경량칸막이를 부수고 이웃집으로 대피 • 옷에 불이 붙으면 얼굴을 가리고 바닥에 뒹굴며 불을 끈다. • 계단을 이용해 이동한다(엘리베이터 사용 금지). •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없는 경우 옥상으로 대피한다. • 낮은 자세로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싸고 이동한다. • 방문을 열기 전에 손잡이가 뜨거워지 확인한 후 만진다. •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린다.
-------------------	--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기가 방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물에 적신 옷이나 이불로 막는다. • 연기가 많은 경우 기어서 이동하되 배는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.
--	--

61. ⑤ (P361)

당뇨병
대상자

- 단순당질 섭취를 피하고, 복합당질의 식품 선택
- 흰밥보다는 잡곡밥, 과일주스보다 생 과일이나 생채소
- 혈당지수가 높은 식품은 되도록 피한다.
- 기름에 튀기거나 볶는 것을 자주 하지 않고 구이나 찌는 조리법 이용
- 비타민과 무기질을 충분히 섭취
- 닭고기는 껍질을 벗기고 조리

혈당
지수
높은
식품

- 포도당(100), 바게트빵(92), 찹쌀밥(92), 흰밥(86), 도넛(86), 떡(85), 감자(85), 우동(85), 늙은호박(75), 수박(72), 빵(70), 고구마(61)

혈당
지수
낮은
식품

- 현미밥(55), 바나나(52), 포도(46), 오렌지(42), 딸기(40), 사과(38), 배(38), 양배추(26), 우유(27), 미역(16), 콩(18)

62. ④ (P380)

이 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가볍고, 부드러우며 보습성이 있는 것 • 이불커버는 감촉이 좋은 면제품 • 자주 햇볕에 말리면 자외선에 의한 살균 효과 • 이불을 건조시키면 면이 팽창하여 보온성이 증가 • 건조는 오전 10시~오후 2시 • 양모와 오리털 등의 이불은 그늘에서 건조
-----	---

요(매트리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단단하고, 탄력성과 지지력이 뛰어나며 습기를 배출할 수 있는 것 • 너무 폭신하면 자세가 나빠지고 피로해지기 쉽다.
린텐류 (시트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트는 주름이 생기지 않고 한 장으로 요를 덮을 수 있는 크기 • 시트 소재는 튼튼하고 흡습성이 좋은 열은 색 면 • 소재가 두껍고 풀을 먹이거나 재봉선이 있는 것은 욕창 위험
베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습기를 흡수하지 않고, 열에 강하며 촉감이 좋은 재질 • 메밀껍질이나 식물의 종자로 만들어진 베개가 좋다. • 높이는 척추와 머리가 수평이 되는 것 • 폭은 어깨 폭에 20~30cm를 더한 것 • 목침이나 돌처럼 딱딱한 베개는 목근육과 골격에 무리를 주고 혈액순환 방해
※ 흡습성 관련 • 요(매트리스), 베개 : 습기배출 재질 • 시트, 속옷 : 흡습성이 좋은 면	

63. ② (P445)

① 그릇은 접시보다는 사발 사용 ③ 영양보호가 확인 ④ 졸려 하거나 초조해하는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. ⑤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주어서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준다.

64. ② (P449)

65. ① (P454)

② 위험한 물건은 치매 대상자가 발견할 수 없는 곳에 보관한다. ③ 유리문이나 큰 유리창에는 눈높이에 맞춰 그림을 붙여 유리라는 것을 알게 한다. ④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치매 대상자가 다니는 곳에 전기코드나 양탄자, 깔개를 두지 않는다. ⑤ 욕실의 문턱을 없애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한다.

66. ⑤ (P458)

답는 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그릇의 크기를 조절하여 식사량을 조정한다. •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대체식품을 이용한다. •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는 식사를 만들어 준다. • 위험한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→ 치매대상자가 좋아하는 다른 간식과 교환한다. • 금방 식사한 것을 알 수 있도록, 먹고 난 식기를 그대로 두거나 매식사 후 달력에 표시하게 한다.
-------	---

67. ③ (P460)

답는 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치매 대상자의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 •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 배회 증상을 줄인다. • 집안에서 배회하는 경우 배회코스를 만들어 둔다. • TV나 라디오를 크게 틀지 않으며 집안을 어둡게 하지 않는다. • 낮 시간에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 에너지 소모를 하도록 한다. •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림으로써 정서 불안에 의한 배회를 줄여준다. • 가족들과 다과 등을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다.
X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한다. • 낮잠을 충분히 자게 한다. • 정신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처리한다.

68. ① (P463)

개념 및 특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무의미한 사건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난폭한 반응을 보이는 것 • 자주 일어나지 않고,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. • 초기에 분노로 시작하며 에너지가 소모되면 지쳐서 행동 중지 • 질병 초기에 나타나서 수개월 내에 사라진다.
---------	--

69. ④ (P464)

특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질녘이 되면 더욱 혼란해지고 불안정하게 의심 및 우울 증상을 보이는 것
기본 원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질녘에는 영양보호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매 대상자와 함께 있다. •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주거나 애완동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한다. • 낮 동안 움직이거나 활동하게 한다.
답는 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상자를 밖으로 데려가 산책을 한다. • TV를 켜놓거나 밝은 조명이 도움

70. ② (P465)


기본 원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치매 대상자는 보통 성 자체에는 관심이 없음을 인식 • 부적절한 성적 행동관련 요인 관찰, 때때로 행동교정이 도움 • 노출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 • 이상한 성행위가 약물복용 때문에 유발될 수 있음을 이해
답는 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옷을 벗거나 성기를 노출한 경우 → 당황하지 말고 옷을 입혀준다. •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할 때 → 즉각 멈추지 않으면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것을 가져간다고 경고 • 성적 관심을 보일 경우 → 공공장소 출입을 삼가고, 방문객 제한

71. ④ (P461)

기본 원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치매 대상자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는다. • 치매 대상자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귓속말하지 않는다. • 잃어버렸다거나 훔쳐 갔다고 주장하는 물건 찾으면 → 비난이나 혼계하지 말 것 • 잃어버린 물건을 발견했을 경우 →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행동 • 규칙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어 현실감 유지 • 치매 대상자가 다른 곳에 신경을 쓰도록 계속 관심을 돌린다. • 치매 대상자에게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간단히 설명
-------	---

80. ① (P534)

〈패드 부착〉

오른쪽 패드	• 오른쪽 빗장뼈 밑에 부착	
왼쪽 패드	• 왼쪽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부착	